

낮선상황에서 영아들의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관련성

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12~18개월 영아들의 애착과 정서조절의 관련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애착 유형을 분류하고, 또한 낯선 상황 절차의 재결합 상황에서의 영아의 정서조절 행동들을 변인으로 정서조절 유형을 분류하여 애착 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애착 유형은 낯선 상황 실험(Ainsworth et al, 1978)을 사용하여 분류하였고, 영아의 정서조절은 Weinberg와 Tronick (1999)의 Infant & Caregiver Engagement Phases (ICEP) 중 Infant Engagement Phases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애착 유형 분류 결과 안정 애착이 63.9%, 불안-회피 애착이 13.9% 불안-저항 애착과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이 각각 11.1%로 나타났다. 둘째, 낯선 상황 실험 중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영아가 보이는 정서조절 행동들을 변인으로 하여 정서조절 유형화를 시도하여, 정서조절 유형을 개방적 정서표현(28.1%), 억제된 정서표현(43.8%), 과장된 정서표현(28.1%)의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셋째, 영아의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안정 애착은 개방적 정서 표현 유형과, 불안-회피 애착은 억제된 정서 표현 유형과, 불안-저항 애착은 과장된 정서 표현 유형과 관련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유형 간에 54.2%의 일치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이론적인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애착 유형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을 다르게 발달시켜 간다는 것을 밝혔다.

주요어 : 영아, 애착, 정서조절, 낯선 상황 절차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Bowlby(1982)는 이런 부모-자녀간의 유대 관계를 애착으로 설명하면서 진화론적 맥락의 동물행동학 관
시간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유대는 인간의

점을 도입하여 인간은 애착대상과의 접촉과 근접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특유적 행동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는 인간의 생존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즉, 애착은 특정대상과 접촉하고 근접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Ainsworth, 1969)로서, 인간 발달에 있어서 보편적인 심리적 현상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출생 시부터 계속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애착의 질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적 발달 뿐 아니라 대인관계적인 면의 발달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인간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Kobak & Sreedy, 1988; 유은희, 1991; 박응임, 1995) 발달심리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초기 애착관계의 질은 후에 자신과 애착 대상에 대한 표상적 모델을 구성하는데 기초가 되고, 그 모델은 아동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환경에 접근하고, 이후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발달과제를 해결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친다(손혜련, 1996). 즉,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매순간 환경과의 교류(transaction)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발달시키는데 이러한 지식은 구조화된 정신적 표상, 즉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Bowlby(1973)는 내적 실행 모델이란 한 개인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 갖는 의식적이며 무의식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이는 한 개인이 사건을 지각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의 계획을 구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적 실행 모델은 아동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아동 자신의 행동, 그리고 이런 행동들로

인해 아동이 받는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다. 즉, 생의 초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발달시키고,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지발달 면에서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새로운 문제 상황과 자유놀이 상황에서 탐색행동이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문제해결력도 우수하고 대상영속성의 개념을 더 빨리 습득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Hazen, 1982).

한편 정서조절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나 갈등에 대하여 개인이 정서적 자극 축진의 정도를 조절하는 능력으로(Saarni, Mumme & Campos, 1998), Thompson(1994)은 정서조절이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서 반응을 조정, 평가, 수정하는데 관계되는 내적, 외적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전통적으로 정서는 개인 내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로 정의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게 되면서 정서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즉, 정서의 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표출의 의미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서로 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의 개념 변화에 따라 연구자들은 맥락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서 조절 능력, 즉,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임희수, 박성연, 2002). 또한 정서나 주의, 각성을 조절하는 능력은 일차적으로 영아기 동안 양육관계 내에서 발달하고, 이는 일생 동안 행동이나 사회적 관계, 적응적 기능의

조직화의 기초가 된다고 보는 주장들로 인해 (Miller, McDonough & Rosenblum, 2002) 최근 애착과 정서조절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Cassidy(1994)는 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이론화하여 애착 유형별로 정서조절 전략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영아는 특정 양육 역사에 맞추어 정서조절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전략이든 어머니와의 근접과 접촉을 유지하여 보호받으려는 목표를 위한 것이다. 안정 애착 영아는 자신의 신호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어머니와의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 신호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서를 개방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부모와 정서를 공유하는 전략을 발달시킨다. 불안-회피 애착 영아는 일관되게 거부적인 어머니로 인해 애착관계에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고, 정서적 위안의 근원으로써 부모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발달시켜 정서표현을 억제한다고 설명했다. 불안-저항 애착 영아는 일관되게 거부적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비일관적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최대한으로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에게 극도의 의존성을 보이며 정서표현도 과장되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Braungart와 Stifer(1991)는 낮선 상황 절차에서 격리 동안 불안-회피 애착 영아는 대인지향적인 행동을 덜 보인 반면, 자기 위안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재결합에서 부모에 대한 접근보다는 장난감 탐색을 적극적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 여러 연구에서 불안-저항 애착아는 안정 애착아보다 실험실에서 더 두려워하였고 (Miyake, Chen & Campos,

1985, Calkins & Fox, 1992),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것에도 더 두려움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Hazen & Durrett, 1982; Jacobson & Wille, 1986).

그러나 국내에서는 영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애착과 정서조절을 연결시켜 본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양연숙(2000)은 타인 양육 영아의 애착과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에서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타인양육 영아의 애착과 정서조절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고, 영아의 정서조절에 대해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 기질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는 아직은 자녀의 실제적인 양육이 어머니에 의해 대부분 전담되어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비취업모 영아의 애착과 정서조절에 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아의 애착 및 정서조절의 유형을 분류하고,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이론적인 관련성에 대해 실증적인 검증을 해보고자 한다. 최근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자녀 간 애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애착과 정서조절의 관련성을 토대로 영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낮선 상황 실험에서 12~18개월 영아들의 애착 유형 분포는 어떠한가?
2. 영아의 정서조절 유형화를 시도했을 때 그 분류는 어떠한가?

3. 영아의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 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신촌, 은평, 여의도, 일산)에 거주하는 만 12개월부터 18개월 사이의 영아와 어머니 3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영아 중 여아가 15명, 남아가 21명으로 모두 정상 분만이었으며, 실험 당시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최저 연령은 12개월 3일, 최고 연령은 18개월 26일로 평균 15.6개월(Mdn=16.0, SD=1.6)이었다. 연구 대상으로 정상 발달을 보이고 있는 영아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덴버 발달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별되었다. 연구 대상은 전업주부로 제한하여 영아들의 주 양육자는 모두 어머니였고,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최저 연령은 27세, 최고 연령은 38세, 평균 연령은 32세였으며, 아버지들의 평균 연령은 35.7세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두 명씩을 제외하고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91.7%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였으며, 세 가족만 조모나 이모와 같이 사는 대가족 형태를 보였다. 가정의 한달 평균 수입은 280만원 이상으로 중류층에 속했다.

측정 도구

낮선 상황 절차

낮선 상황 실험은 Ainsworth & Wittig(1969)

에 의하여 애착 제어 체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개발된 것으로서 도입, 어머니와의 격리, 재결합, 낮선이의 출현과 같은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약 30초가 소요되는 도입 상황을 제외하고는 각 3분씩 지속되어 약 25분 정도 소요된다. 일련의 에피소드는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라 영아가 받는 스트레스의 양이 점차 증가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는 영아가 증가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애착 인물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조직화하는가를 관찰하고, 이러한 애착 행동 조직화를 토대로 애착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이 절차를 통해 나타난 영아의 상호 작용 행동을 지표로 애착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미국에서 낮선 상황 절차 워크샷을 연수한 박사과정 두 명에 의해 실시됐고 애착 유형 분류에서 평정자간 100%의 일치율을 보였다.

발달 검사

어머니에게 영아의 건강과 발달력, 가족 관계, 어머니, 아버지의 연령 및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와 정상 발달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한국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Korean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를 실시하였다.

한국어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는 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성, 언어, 전체 운동의 네 영역 104개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후 2주에서 6년 4개월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신정현, 1997). 이 검사의 목적은 아동의 발육을 검사하여 정상, 의문, 이상, 검사 불능 중의 하나를 판정하고, 발달 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선별해내는 것이다.

영아 정서조절 평정

영아의 정서조절은 낮선 상황 절차 중 어머니와 격리 후 재결합하는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타내는 영아의 행동을 5초 단위로 분석하였다. 정서조절은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정서적 각성 정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보는 것이므로 어머니와의 격리 동안 높아진 스트레스와 각성 상태를 재결합하는 상황에서 영아가 보이는 행동으로 평가한다. 정서조절 평정은 양연숙(2000)이 Weinberg와 Tronick(1999)의 Infant & Caregiver Engagement Phases(ICEP) 중 Infant Engagement Phases 를 번역하여 평정한 체계를 사용하였다. 영아의 정서조절은 영아의 얼굴 표정, 몸짓, 신호, 응시 방향 및 발성으로부터 분석되어 4가지의 참여 장면과 3가지의 반응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장면은 각 분석 단위마다 4가지 범주 중 하나의 범주로 분석되어야 하고, 반응 행동은 그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발생 빈도를 기록한다. 분석된 행동 변인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의 재결합 상황에서 영아가 상호 작용 하는 대상이나 특성을 참여 장면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부정적 참여, 대상/환경 참여, 사회적 조정, 사회적 · 긍정적 참여가 포함된다. 부정적 참여(Negative Engagement)는 영아가 부정적인 얼굴 표정을 보이거나 흐느껴 울거나 불평, 까다롭게 구는 음성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환경 참여(object/Environment Engagement)는 영아가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대상이나 물건을 응시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조정(Social Monitor)은 영아가 양육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사회적 · 긍정적 참여(Social Positive

Engagement)는 영아가 즐거운, 특히 미소와 같은 얼굴 표정을 보이며 어머니와 긍정적 방식으로 음성화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칭한다.

정서조절 전략으로서 영아가 나타내는 반응 행동은 자기 위안, 거리 두기, 스트레스 표시로 분석된다. 자기 위안(Self-Comforting)은 입으로 자신의 신체나 사물을 빠는 것 등과 같은 자기 위로 행동이고, 거리 두기(Distancing)는 어머니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유지, 증가시키기 위하여 어머니로부터 몸을 돌리거나 비틀고 등을 구부리며 엎드리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스트레스 표시(Infant autonomic stress indicators)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토하거나 팔뚝질을 하는 것과 같은 각성 상태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영아의 정서조절 평정은 발달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4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평정자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하였다. 영아의 참여장면과 반응행동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86-.92($Mdn = .89$)였다.

절 차

예비실험

예비 실험은 2002년 7월에 Ainsworth 등(1978)의 낮선 상황 절차를 그대로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에서는 에피소드별 지속시간, 장난감 유형이나 자리 배치, 낮선이와 어머니, 영아의 행동, 특히 에피소드 6에서 영아의 스트레스 반응 등 실험절차상의 문제점과 비디오 카메라의 화면 조정에서 유의할 부분들을 알아보았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에피소드 6을 생략

하거나 각 에피소드별 지속시간을 단축하는 등 연구자에 의해 임의로 수정된 실험절차와 평정체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Ainsworth의 낯선 상황 절차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영아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에피소드 6의 분리 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실험이 시작되기 전 어머니에게 실험 절차와 실험 과정 동안 어머니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어머니 역할을 위한 안내문을 제공했다. 또한 낯선 역할에 대해서는 발달심리 전공 대학원 석사생 두 명이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이 녹화된 테이프를 관찰, 충분한 토의와 훈련을 거쳤다.

본 실험

아동의 애착 특성 및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2002년 8월부터 11월까지 낯선 상황 절차를 실시, 실험 전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낯선 상황 절차가 끝난 후 영아가 충분히 진정할 여유를 주고, 어머니와 아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방식을 관찰하기 위해 5분간의 자유놀이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영아의 건강, 영아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 관계, 영아의 발달력 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와 덴버 발달 선별 검사(DDST)를 실시하였다. 전 과정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 분석은 SPSS/PC+ Version 11.0을 사용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낯선 상황 실험에서 영아의 애착 유형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정서조절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 분석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집단간 정서조절 하위차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아의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영아의 애착 유형

우리나라 중류층 비취업모 가정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애착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결과 표 1과 같이 전체 영아 중 63.9%가 안정애착, 13.9%가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애착과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이 각각 11.1%로 나타났다.

한편 타인양육 영아의 애착과 정서조절에 관해 살펴본 양연숙(2000)의 연구에서 안정애착 유형은 다양한 정서조절 유형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유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안정애착 유형은 하위 유형으로도 분류하여 그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1. 낯선 상황 절차에 의한 애착 유형 분포

| 애착유형 | 남아 | 여아 | 전체(백분율) |
|------------|----|----|----------|
| 불안-회피(A) | 4 | 1 | 5(13.9) |
| 안정(B) | 15 | 8 | 23(63.9) |
| 불안-저항(C) | 4 | 0 | 4(11.1) |
| 비조직/비일관(D) | 1 | 3 | 4(11.1) |
| 전체 | 24 | 12 | 36(100) |

표 2. 안정 애착 하위 유형 분포

| 안정 애착 하위유형 | 남아 | 여아 | 전체(백분율) |
|-------------------|----|----|---------|
| B ₁ 유형 | 6 | 3 | 9(39.1) |
| B ₂ 유형 | 5 | 0 | 5(21.8) |
| B ₃ 유형 | 1 | 2 | 3(13.0) |
| B ₄ 유형 | 3 | 3 | 6(26.1) |
| 전체 | 15 | 8 | 23(100) |

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B₁ 유형은 어머니와의 재결합시 원거리 상호작용으로도 만족하고, B₂ 유형은 약간의 접촉 추구와 접촉 유지 행동을 보인다. B₃ 유형은 재결합시 적극적인 접촉 추구와 접촉 유지 행동을 보이며 격리시의 불안으로부터 쉽게 안정되어 다시 탐색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B₄ 유형은 접촉 추구와 접촉 유지 행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이 B₃ 유형과 유사하지만, 격리시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서 탐색으로 전환되는데 다른 안정 애착 하위 유형보다 어려움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안정 애착 하위유형 중 B₁ 유형은 39.1%, B₂ 유형은 21.8%, B₃ 유형은 13.0%, B₄ 유형은 26.1%로 나타났다.

영아의 정서조절 유형

낮은 상황에서 관찰한 영아의 7가지 정서조절 차원을 변인으로 하여 정서조절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들을 유사성(similarity) 또는 거리(distance)에 의하여 몇 개의 군집으로 집단화하는 K-means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K-means 군집방법은 개체가 어느 한 군집에만 속하도록 하는 상호배반적 군집방법으로,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하고, 각

개체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 절차는 개체를 초기의 K 군집으로 분류한 다음, 각 군집의 군집 변인들에 대해 중심점들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주어진 케이스에 대해서 중심점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현재 속하고 있는 군집의 중심점과 가까우면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군집으로 배정한다. 각 케이스에 대하여 이 절차를 시행하고, 어느 케이스도 다른 군집에 재배정되지 않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연구자의 가설과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군집의 수를 3개로 지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군집의 수를 2, 4개로 변화시켜 가면서 수행된 결과들을 비교해 본 결과, 각 군집의 케이스 수와 최종 군집의 중심값을 고려했을 때 군집의 수는 3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각 군집별로 7개의 정서조절 차원의 중심점들은 표 3과 같다.

표 3. 각 군집별 정서조절 차원의 중심점

| | 군 집 | | |
|------------|-------|-------|-------|
| | 1 | 2 | 3 |
| 부정적 참여 | 4.78 | .86 | 37.89 |
| 대상/환경 참여 | 42.22 | 59.57 | 30.00 |
| 사회적 조정 | 19.44 | 9.07 | 4.00 |
| 사회적 긍정적 참여 | 7.56 | 5.57 | .00 |
| 거리두기 | .00 | .50 | .00 |
| 스트레스 표시 | .00 | .00 | 1.33 |
| 자기위안 | .00 | .93 | .00 |

세 유형의 군집별로 각 정서조절 차원의 중심점들을 비교하여 유형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28.1%)은 사회적 조정, 사회적 긍정적 참여가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거리두기, 스트레스 표시, 자기위안

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어머니와의 격리 동안 부정적 정서를 비교적 크게 느끼지도 않으면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경우에는 어머니와 재결합시, 어머니에게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어머니에게서 위안을 구하고, 또 한편 재결합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아가 직접적, 부모-지향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개방적이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조절하는 유형을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43.8%)는 대상/환경 참여, 거리두기, 자기위안이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부정적 참여, 스트레스 표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이 유형의 영아는 어머니와의 격리에도 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고, 부정적 정서나 긍정적 정서 모두 최소화하여 표현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 스스로 위안을 하는 자기-지향적 전략을 보였고, 어머니와 재결합했을 때도 기쁨을 표현하거나 쉽게 다가가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은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28.1%)은 부정적 참여와 스트레스 표시에서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반면에 대상/환경 참여, 사회적 조정, 사회적 긍정적 참여, 거리두기, 자기위안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유형의 영아는 격리 동안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재결합시 어머니에 의해서도 쉽게 달래지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는 데 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기만 할 뿐 스스로 해결하거나 어머니의 도움을 적절히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유형을 ‘과장된 정서표현’이라 명명하였다. 정서조절 유형의 명명은 영아의 정서조절을 이론화한 Cassidy(1994)의 연구에 기초하여 양연숙(2000)이 선정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영아의 세 가지 정서조절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실제로 세 유형별로 정서조절 차원의 중심점들에 유의미한 차이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조절 유형별로 정서조절 행동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서조절 유형별 정서조절 행동에 대한 변

표 4. 정서조절 유형별 정서조절 행동에 대한 변량분석

| | 정서조절 유형 | | | F | Tukey |
|------------|-------------|-------------|--------------|----------|-------|
| | 개방적 정서표현(A) | 억제된 정서표현(B) | 과장된 정서표현(C) | | |
| | M(SD) | M(SD) | M(SD) | | |
| 부정적 참여 | 4.78(6.02) | .86(2.00) | 37.89(11.04) | 87.15*** | C>A=B |
| 대상/환경 참여 | 42.22(5.54) | 59.57(4.70) | 30.00(11.08) | 47.92*** | B>A>C |
| 사회적 조정 | 19.44(6.65) | 9.07(3.85) | 4.00(2.74) | 26.96*** | A>B>C |
| 사회적 긍정적 참여 | 7.56(8.47) | 5.57(6.94) | 0.0(0.0) | 3.41* | A>B=C |
| 거리두기 | 0.0(0.0) | .50(.85) | 0.0(0.0) | 3.01 | |
| 스트레스 표시 | 0.0(0.0) | 0.0(0.0) | 1.33(2.39) | 3.63* | C>A=B |
| 자기 위안 | 0.0(0.0) | .93(2.67) | 0.0(0.0) | 1.06 | |

* $p < .05$ ** $p < .01$ *** $p < .001$

량분석 결과, 자기위안, 거리두기를 제외한 5개 정서조절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정적 참여는 과장된 정서표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 영아들이 격리시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고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며 쉽게 달래지지 않는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대상/환경 참여는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은 어머니와의 재결합시에도 어머니에게 주의를 기울여 접근이나 접촉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대상에 주의를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조정과 사회적 긍정적 참여는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 영아들은 어머니와의 재결합에 어머니 지향적으로 적절하게 위안을 구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머니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며, 재결합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표시는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유형 영아가 분리시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고 그 표현도 극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각 정서표현 유형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은 사회적 조정과 사회적 긍정적 참여를 다른 두 유형보다 많이 나타낸 반면, 부정적 참여나 스트레스 표시는 적었다.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은 대상/환경 참여를 많이 보인 반면, 부정적 참여, 사회적 긍정적 참여, 스트레스 표시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였다. 과장된 정서표현은 부정적 참여와 스트레스 표시를 많이 보인 반면, 대상/환경 참여, 사회적 조정, 사

회적 긍정적 참여가 적었다. 양연숙(2000)의 연구에서도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은 사회적 조정이나 사회적 긍정적 참여가 많아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다른 유형보다 사회적 조정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한다고 보고했다. 또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과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은 서로 대조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환경 참여, 부정적 참여, 스트레스 표시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 두 유형간에 전반적으로 대조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영아의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간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에 대한 Cassidy(1994)의 이론에 기초하여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간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즉, 안정 애착은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과, 불안-회피 애착은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과, 불안-저항 애착은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과 관련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한편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은 조직화되고 일관된 행동 특성이나 전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조직화된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정서조절 유형과의 관련성을 보는 것은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χ^2 분석 결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chi^2 = 18.09, df=4, p < .001$), 영아의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 간에 54.2%의 일치율을 보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불안-회피 애착의 경우 5명이 모두 억제된

표 5. 영아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의 일치율

단위: 명(%)

| 정서조절 유형 | 애착유형 | | | 전체 |
|--------------------|----------|---------|---------|----------|
| | 안정 | 불안 회피 | 불안 저항 | |
| 개방적 정서표현 억제된 | 9(28.1) | 0(0.0) | 0(0.0) | 9(28.1) |
| 정서표현 과장된 | 9(28.1) | 5(15.6) | 0(0.0) | 14(43.8) |
| 정서표현 | 5(15.6) | 0(0.0) | 4(12.5) | 9(28.1) |
| 전체 | 23(71.9) | 5(15.6) | 4(12.5) | 32(100) |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고, 불안-저항 애착 역시 4명이 모두 과장된 정서 표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즉 불안-회피 애착과 불안-저항 애착은 각각 억제된 정서 표현, 과장된 정서 표현 유형과 100%의 일치율을 보였다. 안정 애착의 경우에는 전체 23명중 9명(39.1%)은 개방적 정서 표현 유형에, 다른 9명(39.1%)은 억제된 정서 표현 유형에, 나머지 5명(21.8%)은 과장된 정서 표현 유형에 분류되어, 안정 애착 유형에서는 다양한 정서조절 유형이 나타났다. 안정 애착영아들이 다양한 정서조절 유형으로 분류된 데에는 정서조절에 있어서 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 간에 다소 다른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별로 정서조절 유형을 알아보았다.

표 6에서와 같이 B₁ 유형 9명 중 5명(55.6%)은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에, 나머지 4명(44.4%)은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고, B₂ 유형 5명 중 4명(80%)은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에, 나머지 1명(20%)은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다. B₃ 유형 3명중 2명(66.7%)은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에, 나머지 1명(33.3%)은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고, B₄

표 6. 인정애착 하위유형과 정서조절 유형

단위: 명(%)

| 정서조절 유형 | 안정 애착 하위유형 | | | | 전체 |
|--------------------|----------------|----------------|----------------|----------------|---------|
| | B ₁ | B ₂ | B ₃ | B ₄ | |
| 개방적 정서표현 억제된 | 5(21.8) | 1(4.3) | 2(8.7) | 1(4.3) | 9(39.1) |
| 정서표현 과장된 | 4(17.4) | 4(17.4) | 1(4.3) | 0(0.0) | 9(39.1) |
| 정서표현 | 0(0.0) | 0(0.0) | 0(0.0) | 5(21.8) | 5(21.8) |
| 전체 | 9(39.1) | 5(21.8) | 3(13.0) | 6(26.1) | 23(100) |

유형 6명중 5명(83.3%)이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고, 나머지 1명(16.7%)만이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다. 안정 애착 하위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유형 분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chi^2 = 21.18, p < .001$).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12~18개월 영아의 애착 유형을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 애착,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으로 분류시 그 분포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영아들의 애착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결과 안정 애착 63.9%, 불안-회피 애착 13.9%, 불안-저항 애착과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이 각각 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ain(1994)과 Goldberg(1991)가 정상 집단의 경우 안정 애착 55~65%, 불안-회피 애착 20~30%, 불안 저항 애착 5~15%,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은 15~25%라고 보고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김은하, 2003). 국내에서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영아와 어머니

간의 애착 유형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비록 구체적인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안정 애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불안-회피 애착, 불안-저항 애착 순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유효순, 1985; 김종순, 1989; 이영환, 1993; 박응임, 박성연, 1994). 그러나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을 포함하여 분류하지 않았고, Ainsworth의 낮선 상황 절차를 다소 수정하여 에피소드 6을 생략한 채 실시했다는 점이다. 국내 선행 연구 중 Ainsworth의 낮선 상황 절차를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한 연구로 나유미, 최해훈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결과와 본 연구 결과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나유미(1997)는 안정 애착 98%, 불안-회피 애착 2%, 불안-저항 애착 0%로 보고하였고, 최해훈(1997)에서는 안정 애착 57%, 불안-회피 애착 3%, 불안-저항 애착 27%, 비조직적 비일관적 애착 13%로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와 본 연구 모두 중류층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지만,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다른 다양한 생태학적 조건의 차이와 문화내 표집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van Ijendoorn과 Kroonenberg(1988)는 여러 문화권에서 낮선 상황 절차를 이용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애착 유형의 빈도에서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보다 문화내의 표집 차이임을 주장하였다(김은하, 2003). 또한 국외 선행 연구들에서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에 대해서 학대받는 영아들 혹은 위험의 요소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국내에서는 고위험

군에 대한 애착 연구가 거의 없다. 특별히 고위험군이 아닌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조직/비일관적 애착 유형에 대해 양육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검토하여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의 선행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 애착 유형을 하위 분류인 B₁, B₂, B₃, B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불안-회피 애착과 불안-저항 애착은 각각 5명, 4명으로 전체 대상 자체가 작고, 안정 애착의 하위유형 별로 정서조절을 살펴보기 위해 안정 애착만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 하위유형 중 B₁ 유형은 39.1%, B₂ 유형은 21.8%, B₃ 유형은 13.0%, B₄ 유형은 26.1%로 나타났다. Ainsworth 등(1978)의 연구에서는 전체 표집 중 안정 애착의 하위유형인 B₃ 유형이 가장 많았고(43%), B₂(10%), B₁(9%), B₄(4%) 순이었다. 불안 회피 애착(20%)과 불안-저항 애착(13%)도 많은 수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애착을 하위유형으로 분류한 박응임과 박성연(1994)의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 중 B₃ 유형이 가장 많았고(전체 표집의 33%), B₄ 유형은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B₃ 유형과 B₄ 유형의 구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피소드인 영아가 혼자 남겨지는 에피소드 6을 생략한 채로 실험을 했다는 점이 본 연구와 크게 다르다. 낮선 상황 실험을 비교적 그대로 사용한 나유미(1997)의 연구에서는 B₄ 유형이 전체 표집의 44%로 나타나 B₃ 유형의 약 두 배 정도로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영아의 정서조절 행동을 변인으로 정서조절 유형을 분류한 결과 개방적 정서표현(28.1%), 억제된 정서표현(43.8%), 과장된 정서표현(28.1%)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어머니에게서 위안을 구하고, 재결합의 기쁨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으로 직접적이고 어머니 지향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개방적이고 적응적인 전략으로 조절하는 특성을 가진다.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은 부정적 정서나 긍정적 정서 모두 표현을 최소화하고 어머니와 일정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유형이다.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은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매우 강하게 느끼고 쉽게 달래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는데 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유형이다. 이처럼 여러 정서조절 행동을 토대로 정서조절을 유형화하여 각 정서조절 유형을 조직화하고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영아의 안정 애착-개방적 정서표현, 불안회피 애착-억제된 정서표현, 불안저항 애착-과장된 정서표현 유형 간에 54.2%의 일치율을 보였다. 불안-회피 애착과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 불안-저항 애착과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간에는 100% 일치율을 보였고, 안정 애착은 세 정서표현 유형에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이같은 애착 유형과 정서조절 유형간의 관련성은 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이론화한 Cassidy(1994)의 설명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불안-회피 애착 영아는 어머니의 만성적인 거부에 대한 분노가 매우 강하지만,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어머니가 자신을 떠나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착을

강조하고 어머니로부터 양육행동이나 위안을 이끌어 낼만한 신호, 정서의 표현은 모두 억제하는 것이다. Braungart와 Stifer(1991)는 낮선 상황 절차에서 재결합시 불안-회피 애착 영아는 정서조절이 어머니를 향해 있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는 자기-지향적이어서 부모와 그 고통을 공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회피 애착 영아는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고 오히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다(Malatesta, Culver, Tesman, & Shepard, 1989).

불안-저항 애착 영아는 비일관적이고 민감하지 못한 어머니로 인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주의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을 발달시킨다(Main & Solomon, 1986). 따라서 낮선 상황 절차에서 재결합시 어머니의 주의를 최대한 오래 끌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크게 표현하고 쉽게 달래지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Kochanska(1998)는 불안-저항 애착 영아들은 위협적인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조차 안정 애착 영아들에 비해 불안을 강하게 느끼고 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안정 애착 영아는 자신의 신호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어머니와의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호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부모와 정서를 공유한다. 이들 영아는 분리 동안 느꼈던 불안을 재결합시에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어머니의 도움을 구하고, 또 재결합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안정 애착 영아 23명

이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에 9명(39.1%),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에 9명(39.1%),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에 5명(21.8%)이 분류되어 안정 애착 영아들은 보다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안정 애착 유형이라도 안정 애착의 하위유형별로 다소 다른 행동 특성과 발달 배경을 가지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양연숙(2000)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의 52%가 개방적 정서조절 유형이 아닌 다른 두 유형에 분류되어 후속 연구에서는 안정애착의 정서조절 유형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 애착의 하위유형별로 정서조절 유형을 알아본 결과 B₁ 유형 9명 중 5명(55.6%)은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에, 나머지 4명(44.4%)은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고, B₂ 유형 5명 중 4명(80%)은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에, 나머지 1명(20%)은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다. B₃ 유형 3명 중 2명(66.7%)은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에, 나머지 1명(33.3%)은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고, B₄ 유형 6명 중 5명(83.3%)이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고, 나머지 1명(16.7%)만이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되었다. 특이할 만 한 점은 B₁ 유형에서는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으로 분류된 영아가 한명도 없었고 B₄ 유형에서는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으로 분류된 영아가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안정 애착 중에서도 격리시 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재결합시에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나 접근, 접촉을 크게 원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B₁ 유형은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에 분류될 가능성은 높은 반면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으로 분류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격리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재결합에도 쉽게 달래지지 않아 놀이로 돌아가는데 다소 어려움을 보이는 특성을 가진 B₄ 유형은 대부분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으로 분류되는 반면,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의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의 표집수가 작고 중류층 비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우리 나라 영아의 애착 유형이나 정서조절 유형으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36명의 연구 대상에서 얻은 결과가 전체 모집단의 애착 및 정서조절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자녀 양육이나 영아의 발달에 관심이 많은 양육자라는 편파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안정애착 영아들의 정서조절 유형이 다양하게 분류된 것을 고려했을 때, 안정애착의 정서조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안정애착의 하위유형별로 정서조절 방식에 대한 선행요인이나 발달 경로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영아의 정서조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인 반응만을 주로 보았지만, 영아의 경우에는 신체적이거나 생리적인 반응도 함께 보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차원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후속연구에서는 고려해 볼만 하다.

참 고 문 헌

김은하 (2003). 낮선 상황에서 영아들의 애착 행동

-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종순 (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영속성 보존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나유미 (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6(1), 113-119.
- 박응임, 박성연 (1994). 낯선 상황의 애착유형분류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59-170.
- 손혜련 (199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모자간 애착, 유아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정현 (1997). 애착장애아와 언어장애아의 특성비교: 애착과 의사소통 의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 대한가정학회지, 29(2), 333-335.
- 양연숙 (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 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효순 (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환 (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최혜훈 (1997).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S. & Wittig, B. A. (1969). Attachment and exploratory behavior in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B. M. Foss(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Vol. 4, 113-136)*. London: Methuen.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ition)*. New York: Basic Book.
- Braungart, J. M., & Stifer, G. A. (1991). Regulation of negative reactivity during the Strange Situation: Temperament and attachment in 12-month-old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4*, 349-567.
- Calkins, S. D. & Fox, N. A. (1992). The relations among infant temperament, secur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 at twenty-four months. *Child Development, 63*, 1456-1473.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228-249.
- Goldberg, S. (1991). Recent development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6*, 393-400.
- Hazen, N. L. (1982). Spatial exploration and spatial Knowledge: Individual and developmental very young children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3*, 826-834.
- Hazen, N. L., & Durett, N. E. (1982). Relationship of security of attachment and cognitive mapping

- abilities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51-759.
- Jacobson, J. L. & Wille, D. E. (1986). The influence of attachment pattern on developmental changes in peer interaction from the toddler to the preschool period. *Child Development*, 57, 338-348.
- Kobak,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chanska, G. (1998). Mother-child relationship, child fearfulness, and emerging attachment: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480-490.
- Main, M. (1994).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the study of attachment organization: Implication for psychoanalysis. *Annual Research Lecture to the British Psycho-Analytical Society*, London.
- Main, M. & Solomon, J. (1986). Discovery of new, insecure-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pp. 95-124). In T.B. Brazelton & M.W. Yogman (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
- Malatesta, Z., Culver, C., Tesman, R. & Shepard, B. (1989). The development of emotion expression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lif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4, 106-129.
- Miller, L., McDonough, C., Rosenblum, L. & Sameroff, J.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Situational effects on infant and caregiver behavior. *Infancy*, 3, 403-431.
- Miyake, k., Chen, K., & Campos, J. J. (1985). Infant temperament, mother's mode of interaction, and attachment in Japa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76-298.
- Saarni, C., Mumme, O. L., & Campos, J. J. (1998). Emotional development: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3, 237-309.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Fox (Ed.),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59, 25-32.
- van IJzendoorn, M. H., & Kroonenberg, P. M. (1988). Cross 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 Weinberg, M. K., & Tronick, E. Z. (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175-181

1차 원고 접수 : 2005. 4. 15
 수정 원고 접수 : 2005. 5. 14
 최종게재결정 : 2005. 5. 17

The relation of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of infant in the Strange Situation Procedure

Hye-Joo Park Soon-Hang Lee Hae-Hoon Choi Hee-Jeong Bang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a) to classify the attachment type and emotion regulation type, and (i) to examine whether attachment was linked with emotion regul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6 infants of middle class housewives residing in Seoul and Kyungki Area(Shinchon, Eunpyoung, Yeo-ui-do, Ilsan) whose age was 12-18 months. In order to assess the patter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each infant-mother dyad was observed in the Strange Situ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ttachment type classification, type B holds 63.9% of the sample, type A holds 13.9%, and type C & D hold 11.1% separately. Second, In the type of infant's emotion regulation, 9 infants(28.1%) were classified as 'open emotion expression', 14 infants(43.8%) were as 'minimized emotion expression', 9 infants(28.1%) were as 'heightened emotion expression'. And finally,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infant-mother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Keywords: infant,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strange situation